

“공존의 시대 열어 신뢰받는 의회 돼야”



이 강 영
남구의회 회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뵈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남구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주

■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최사

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구민의 대변자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열 네명 의원들은 「주민 감동, 열린의정」을 기치로 미래를 여는 주요사업과 민생을 꼼꼼하게 살피는 ‘성숙한 정치’를 약속 드립니다.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몸이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를 뜻하며 상대가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는 ‘운명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토론과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뛰는 공존의 시대를 열고 주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전저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한해 구정운영의 기준이니 만큼, 집행부는 내실있는 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대안제시를 통해 1년의 첫 단추가 잘 채워지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일 뒤면 절기상 “대한(小寒)”이며, 민족의 명절 “설”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큰 추위는 없었지만, 주변의 무관심으로 더 힘든 겨울을 나지는 않는지,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땀과 열정이 구민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함께하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남구의회 신년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1월 6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2020년 경자년 신년회를 가졌다. 참석의원들은 28만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뢰받는 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남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최

2020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81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열렸다. 회기 첫날인 17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이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 동반자로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 토론과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202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뛰는 공존의 시대를 열고 주민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를 하였다. 이어, 박구슬 의원은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를 위한 동행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한편 남구의회는 20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펼쳐,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업무의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등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이 날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성부)는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노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은 찬성의견 제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대항 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면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원안(수정)가결 및 찬성의견 제시한 8건의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날 김철현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전향적인 발전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없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자치법규 규제 우선정비 대상에 해당되는 배상책임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노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행정안전부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 통보에 의거 과태료 부과수 절차 적용 법령 변경 및 상위법령의 개정

에 맞게 적용 조항을 변경하고 낮표부호, 붙여쓰기 작성형식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코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재난대응체계 관련 규정의 변경(재난안전법 개정 등)이 발생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초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6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찬성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 요청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020년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인 ‘온새미로’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아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의 현황과 운영상

어려운 점, 그리고 시설종사자의 고충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복지 의정활동에 노력을 더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 남구의회 2020년도 연간 의사일정 계획

회수	회기	회의일수	주요내용
총 9회		79	
제281회 임시회	1.17.(금)~1.22.(수)	6	•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제282회 임시회	2.12.(수)~2.17.(월)	6	• 안건심사 등
제283회 임시회	4.20.(월)~4.23.(목)	4	• 결산감사위원 선임 • 안건심사 등
제284회 임시회	5.14.(목)~5.18.(월)	5	• 안건심사 등
제285회 제1차정례회	6.10.(수)~6.18.(목)	9	•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안건심사 등
제286회 임시회	7.20.(월)~7.21.(화)	2	•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제287회 임시회	9.8.(화)~9.14.(월)	7	• 안건심사 등
제288회 임시회	10.8.(목)~10.15.(목)	8	•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 안건심사 등
제289회 제2차정례회	11.10.(화)~11.11.(금)	32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 2021년도 예산안 심사 • 안건 심사 등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남구의회는 지난 1월 17일 공동생활가정인 ‘온새미로’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아미주간보호센터(사진 아래)’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5분 자유발언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위한 동행 제안



박 구 슬 의원
(대원1·4·6동)

삶의 방식과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아이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지자체와 정부,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공동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비율은 13.9%로 OECD평균인 28.4%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그동안 시행중인 학교돌봄사업이 맞벌이 부부 부담을 여전히 크게 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서 학교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함께 돌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구에서는 다함께 돌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운영비, 공간마련비용,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과 간식비용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꿈나무지원센터와 남구청 별관 건립시에 다함께돌봄센터 마련을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남구 다함께 돌봄사업은 아직 진행이 더딤니다. 왜일까요? 바로 공간마련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최소 20평 이상의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다함께 돌봄센터 공간 마련을 위해 대단지 아파트 신축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함께 돌봄센터를 아파트 단위로 마련할 경우 아파트별 입주자 대표회의도 운영주체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남구형 다함께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주도 사업운영이 아닌 남구형 주민참여형 사업을 아파트와 빌라촌, 주택가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와도 공존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전향적 발전을 위해



김 철 현 의원
(용당, 감만1·2, 우암동)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복지법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남구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17개소, 종사자 36명, 이용아동은 450여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0%를 초과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세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식비

를 원원기준으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현재 급식비는 1인당 5,000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그 중 20%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로 사용 중입니다. 식재료는 현원에 맞추어 구입하지만 정산은 출석인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결석을 미리 알 수 없어 실제 식재료를 구입하고도 인정받지 못하고 월말 결산에서 급식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경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교사들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 업무수행장동비, 누리담임 처우개선비, 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40~5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는 5년 미만 15만원, 5년 이상 20만원입니다. 이 또

한 센터 운영비로 지급되고, 이로 인해 급여충족이 높아지면서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의 납입이 증가되어 운영비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차별적 지원을 일원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은 국가 시범사업으로, 우리 남구도 용당동에 1호점을 개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일반아동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취약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또 어떤 아이들은 일반 아동이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지금 현실이 과연 옳은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snam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